

권영진 대구시장 코로나 극복 영웅들에게 큰 절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7월 25일 중앙 그룹과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대구의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서울의 선별진료소 등에서 자원봉사한 의료진 100명을 선발해 시상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진 시장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구로 달려와 주셨던 2천500명 이상의 의료진이 아니었다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

료진을 향해 큰 절을 했다.

또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소방구급대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행사가 대구에서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권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코로나19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기억)의 공간과 의료진 등 코로나19 영웅들을 위한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다.

안동종친회 권박 사무국장 퇴임식 가져



권오익 사무국장, 권숙동 안동 종친회장, 권박 사무국장, 권재주 전 종친회장, 이귀화 과장(오른쪽부터)

안동종친회는 11년 간 종친회 발전과 족친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힘써온 안동종친회 권박 사무국장의 퇴임식을 가졌다. 음력 칠월 칠일 칠석인 8월 25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종친회관 3층 회장실에서 권숙동 종친회장을 비롯하여 권재주, 권주연 역대 안동종친회장, 권오의 대종회 사무국장, 권영건 보도부장, 이귀화 사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박 사무국장의 퇴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숙동 종친회장은 권박 사무국장에게 턱밥을 하고나서 감사패와은 수저 한 복을, 이귀화 과장은 꽃다발을 각각 전달했다. 권재주 전 종친회장은 덕담을 통해 “그동안 종친회 일을 열심히 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격려한 후 “비록 퇴임하고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종친회에 두어야 하며 본인이 원해서 퇴임을 하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주연 전 종친회장도 “그동안 국장으로서 고생이 많았으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기 바란다”

고 말했다. 이에 권박 사무국장은 “이렇게 퇴임 자리를 마련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안동종친회는 코로나 때문에 이날 참석 인원을 최대한 줄여 간단하게 행사를 치루었다.

철도청에서 정년퇴직을 한 권박 사무국장(37세, 별장공파)은 지난 2009년 7월 안동종친회 사무국장으로 첫발을 들여놓은 후 지금까지 매년 개최하는 신년인사회, 복회, 정기총회 등을 11년 동안 주선해 왔으며 안동종친회 옥상에 한국 굴지의 재벌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설치, 계약하여 안동종친회에 재정적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귀화 과장은 ‘옛날 안동종친회 사무실 관리가 엄망이었으나 권박 국장이 들어온 후부터 직접 청소하고 정리정돈하여 오늘의 깨끗한 사무실로 탈바꿈시켜 놓았다’고 자랑했다.

간단한 퇴임식이 끝나자 안동시 평화동 ‘정문한정식’ 식당으로 이동, 시원한 뮤밥으로 점심을 먹고 나서 모두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간)

권성준 시골 의사로 여는 ‘인생 2막’

위암 명의 권성준 한양대 의과대 교수 (65)가 이달 말 정년퇴임한 뒤 내년 1월 강원도 설악산에 인접한 양양군의 4급 공무원 보건소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양양군의 인구는 약 2만 8천여명이다. 은퇴 시점이 다가오자 권 교수는 자신에게 ‘내가 하고 싶었고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은 뭘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에 대한 오랜 고민이었다. 결론은 ‘봉사’였다.

그래서 대한위암 학회장과 한양대 병원장 등 화려한 이력을 써온 그에게 여러 대형병원에서 좋은 조건을 내밀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찾아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시골 의사로 인생 2막을 보내고 싶어서였다.

가수 권일 대종회 방문



가수 권일(본명 권오선·權五善, 1955년 6월 30일 ~)은 동료 가수 정일과 함께 7월 28일 대종회를 방문하여 권영익 수석부회장 및 권혁찬 부회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권일은 1961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하여 1986년부터 가수 생활을 시작했다. 올해로 34년째이다. 앨범은 3집까지 발매되었다. 1집은 행당도의 밤, 2집은 사랑, 3집은 사랑은 가슴아파이다.

안동에 사셨던 부모님이 그를 임신한 이후에 정읍으로 이사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은 정읍이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하

권칠인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가족 식사권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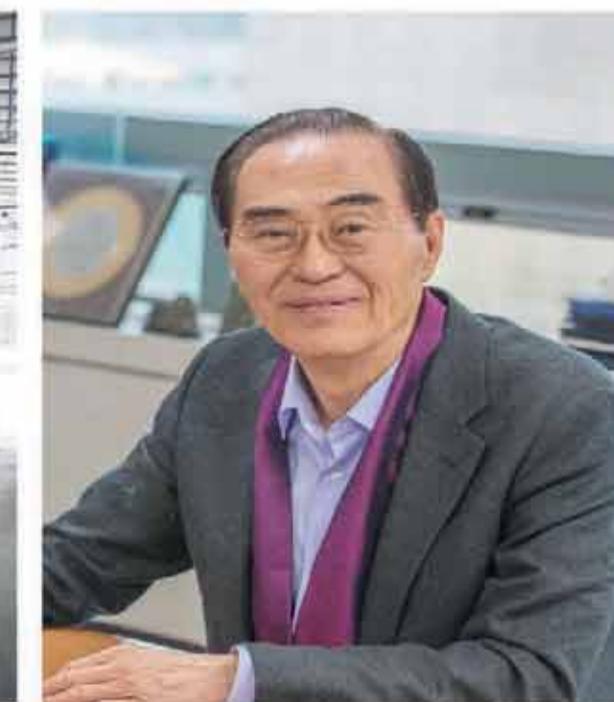
지난 7월 1일자로 화폐본부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40여년을 조폐 맨으로 근무하면서 항상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주인의식과 남다른 노력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해 왔으며, 인터넷과 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은행권과 주화발행이 감소하여 화폐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제품 개발로 지속성장할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화목하고 평랑한 직장 분위기로 인화단결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직원은 1% 부족은 99% 아니라 0%’이 된다는 신념으로 무결점 화폐생산에 도전하고 있다.”고 했다.

권칠인 본부장은 경북 문경 출신으로 1961년 부전 고 진성의 5남 1녀 중 4째이며, 부인 손명숙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권성옥 한정타임스 기자

50년 전통의 전문 골판지 제조 기업



대양그룹

대양그룹 회장 권혁호

대표번호 : 02-3472-5915 홈페이지 : www.dygroup.co.kr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 강남빌딩 5층 대양그룹

동정

▲ 권선출(權善出, 1953년 6월 30일 ~)은 충북 청주시 출신인 주민권과 36세 대종회 이사로 지난 7월 22일 성균관 전례위원회 상임부위원장에 위촉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조물의 장수명화 및 친환경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제천시 출신인 권석규(60)은 충북도 재난안전 실장이 지난 8월 1일자로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임기 2년)으로 임용되었다. 권석규 센터장은 제천고 충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8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1992년부터 충북도에서 근무하며 ‘복지정책과장, 제천시 부시장, 보건복지국장, 재난안전실장’을 역임했다.



▲ 권오석(35세, 복야공파)은 2019년 5월 17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단장으로 취임하여 근무

하고 있다. 원주에서 태어나 단계초, 진광중, 대성고를 거쳐 공군사관학교를 6등으로 졸업하며 제39기로 임관했다. 권 단장은 공군 제35비행전대장,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진급관리과장,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장교 인사과장, 합참 정보계획처장 등을 거쳤다. 2005년에는 비행경력, 작전 참가, 사격, 체력 등 조종사로서 갖춰야 하는 모든 기량과 덕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뽑힌 바 있다. 원주역에서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한글 한문 서예가 권갑경씨의 2남 중장남이다. 권갑경씨는 1995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 권형수(67세)·장성자(64세) 부부가 새농민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40여년을 조폐 맨으로 근무하면서 항상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주인의식과 남다른 노력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해 왔으며, 인터넷과 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은행권과 주화발행이 감소하여 화폐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제품 개발로 지속성장할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화목하고 평랑한 직장 분위기로 인화단결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직원은 1% 부족은 99% 아니라 0%’이 된다는 신념으로 무결점 화폐생산에 도전하고 있다.”고 했다.

권형수(67세)·장성자(64세) 부부가 새농민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 권성준 교수는 2020년 제25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정관 표장을 수상했다.

산업부산물을 혼입한 콘크리트 내구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정립하여 산업부산물의 사용을 더욱 촉진시키고 콘크리트 구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서해해양특수구조대 권재준 경위(42)가 해양경찰청 2분기 ‘빛과 소금’으로 선정됐다. ‘빛과 소금’은 해양경찰청이 매분기 해양경찰 업무발전을 위해 열정과 혁신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는 타의 모범으로 되는 직원이다. 권경위는 지난 5월 코로나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백혈병환자들을 위해 혈액증과 긴급생활비를 기부하는 등 매년 어린이날에 백혈병환자와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 혈액증 기부와 정기후원을 하며 백혈병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주변 동료들과 백혈병환자의 수혈을 위해 지금까지 170장 넘게 혈액증을 기부해 사랑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왔다.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서해해양특수구조대 권재준 경위(42)가 해양경찰청 2분기 ‘빛과 소금’으로 선정됐다. ‘빛과 소금’은 해양경찰청이 매분기 해양경찰 업무발전을 위해 열정과 혁신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는 타의 모범으로 되는 직원이다. 권경위는 지난 5월 코로나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백혈병환자들을 위해 혈액증과 긴급생활비를 기부하는 등 매년 어린이날에 백혈병환자와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 혈액증 기부와 정기후원을 하며 백혈병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주변 동료들과 백혈병환자의 수혈을 위해 지금까지 170장 넘게 혈액증을 기부해 사랑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왔다.